

블랑팡, 새로운 트레이셔널 차이나이즈 캘린더 에디션과 함께 2022년 음력으로의 전환을 기리다

블랑팡이 트레이셔널 차이나이즈 캘린더(Traditional Chinese Calendar)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며 2022년 음력 새해를 기린다. 플래티넘 소재의 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 시계는 화이트 그랑피 에나멜 다이얼 위에서 태음 태양 캘린더 인디케이션을 보여준다. 2022년에 해당하는 별자리 동물인 호랑이가 타임피스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블랑팡이 개발한 특별한 컴플리케이션인 빌레레 트레이셔널 차이나이즈 캘린더는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다이얼의 시, 분, 그리고 그레고리력은 중국력(Chinese Calendar)의 주요 표시들은 전통적인 더블 아워, 날짜, 윤달을 표시하는 달(month), 황도 12궁, 5행, 10천간(ten celestial stems) 등의 인디케이션과 함께 표시된다. 전통 중국력의 월(month)과 모든 블랑팡의 컴플리트 캘린더에 있어 주요 요소가 되는 문페이지 역시 탑재되어 있다.

2022년 호랑이의 해(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21일)를 맞이하며 블랑팡은 이 상징적인 타임피스의 새로운 에디션을 선보인다. 화이트 그랑피 에나멜 다이얼을 갖춘 플래티넘 모델로 로터에 2022년 간지인 호랑이를 인그레이빙했다.

빌레레 컬렉션 고유의 미학적 코드에 충실한 이 섬세한 45mm 더블-스텝 케이스는 기능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언더-러그 커렉터를 갖추고 있다. 이 케이스가 블랑팡의 예술적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다. 챗터 링은 골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뤄져 있는 반면 다른 인디케이션은 에나멜 페인팅으로 완성했다. 살짝 안을 비운 나뭇잎 형태를 하고 있는 메인 바늘과 함께 그레고리력 날짜 인덱스 위를 지나가는 블루 세르펜틴 바늘이 함께 연동되어 있다. 특히 세르펜틴 형태는 18세기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트레이셔널 차이나이즈 캘린더 모델은 셀프와인딩 3638 무브먼트에 의해 구동된다. 이 칼리버는 각기 다른 주기에 따른 불규칙성을 지닌 여러 개의 인디케이션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복잡함을 자랑한다. 보통의 경우 워치메이커들은 메커니즘 개발에 있어 2세기 이상

차곡차곡 쌓아온 워치메이킹 노하우에서 도움을 받지만 트레이디셔널 차이니즈 캘린더 개발에서만큼은 백지에서 출발했다. 이 컴플리케이션은 5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된 진정한 도전의 결과물이다.

실용적이면서 상징적인 트레이디셔널 차이니즈 캘린더는 파인 워치메이킹 애호가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2022년 시리즈를 이루는 개별 번호를 새긴 50개의 타임피스가 풍성한 다양성을 신선한 모습으로 제안한다.